

# 2014학년도 수시1차 모집 논술고사

## - 논술고사 문제 -

### ※ 주의 사항

1. 답안지에 제목을 달지 말 것.
2.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3. 제시문의 어휘는 쓸 수 있으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는 말 것.
4.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요구한 분량에 맞추어 쓸 것.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의 조류 속에서, 서로 다른 언어·문화·역사·관습을 존중하는 열려 있는 시각을 갖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더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서로 얽히며 복잡한 관계를 맺었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정작 동아시아에서, “우리”와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열린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한일 간에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 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적대적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은, 결국 한국과 일본이 함께 경험한 역사에 대한 양 쪽의 확연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 제시되는 제시문 (가)와 (나)는,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일 간 역사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 내의 서로 다른 두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제시문 (가):

우리는 거의 매년 봄 일본발 역사교과서 홍역을 치러야 한다. 지금껏 몇 차례인가 되새겨 보니 세기가 바뀌던 무렵부터 거의 연례행사 격이다. 이미 여러 번 그 처방을 강구해 보았건만 증세는 악화일로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바이러스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상대는 역대 가장 우파로 지목되는 아베 신조 내각이다. 2013년 지금, 다시 시작된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직면하여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 것인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등이 또다시 쟁점화될 것이다. 이에 이러한 현안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 나갈지에 관심을 두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개별적 현안들보다 그 배후에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작용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인식이 더욱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 있다.

최근 일본의 총리인 아베 신조와 집권 자민당의 여러 의원들은 ‘소위 종군위안부의 강제동원은 없었다.’ 라는 기본입장을 거듭 강조해 왔고, 이러한 해석이 역사교과서 수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문부 과학성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또한 일본 역시 핵무기가 사용된 전쟁의 피해자라며 과거의 전범행위를 공공연히 부인하는 것도 이젠 흔한 일이 되었다. 최근에는 군사력의 방어적 사용을 명시한 평화헌법을 수정하겠다고 군국주의적인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상식마저 실종된 채로 정치논리의 괴물만이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역사인식이 계속해서 판을 친다면 역사학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역사의 진실에서 가해자는 가면 뒤로 숨고, 그렇게 남겨진 선량한 피해자들만이 매년 깊은 상처를 입는다.

일본 사회 주류의 이러한 역사인식이 지속되는 한,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통치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 요원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독도에 대한 집요한 시비가 멈추는 날도 기대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동북아 시대의 평화로운 동반자로 공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 사회의 주류가 먼저 솔직한 자기성찰을 통해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일본 스스로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입장 차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나쁜 일본 두들기기’ 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의 나쁜 행위’ 가 인류사회의 ‘공공의 적’ 임을 자각하고 이를 알려나가는 데 힘써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분노의 날을 어떻게 하면 더욱 날카롭게 세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앞 페이지 이어서)

**제시문 (나):**

일본 식민주의의 팽창 과정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겪은 경험은 매우 가슴 아프고 잊기 어려운 일이다. 그에 대한 진심어린 성찰을 통해 평화와 신뢰가 정착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노한 목소리를 높여 반성을 촉구하는 방법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설령 한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식민통치 문제와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 등에 대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관철시킨다고 하여도, 과연 한국과 일본이 같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왜냐하면, 한일 간 역사적 경험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역설적으로 한일 양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다시 말해 한일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자국/자민족 중심주의적인 역사관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관 하에서는 자기 민족/국가의 장구한 역사와 자랑스러운 전통만을 내세우면서 이웃 민족/국가에 대해서는 타자화하고 무시하는 등 적대적인 시각으로 일관하게 된다.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중국도, 이러한 역사관을 부지불식간에 내면화해 왔다. 근대 이전의 역사에 있어, 한국의 국사교과서 역시 일본에 대한 한국의 우월한 문화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이 “왜곡”이라고 항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자국/자민족만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시각과 여기에 기반한 역사연구 및 역사교육이 지속되는 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진정한 화해 및 미래지향적인 관계설정은 요원하다. 서로를 선한 피해자와 악한 가해자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만 바라본다면, 설령 일본이 몇몇 사안에 대해 사과를 하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여전히 두 국가 사이의 적대적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두 국가 간의 갈등은 반복될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악한 가해자 일본”과 “선한 피해자 한국”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혹시나 우리도,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행위를 정당화해 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맺어 왔던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찰적 관점이라면 일본의 자국중심적인 시각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의 자국중심적인 역사인식을 비판하는 일본 내의 양심적 움직임과 신뢰를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항구적인 ‘화해’와 ‘공존’을 바탕으로 한일 양 국가 간의 진정한 동반자적인 관계가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두 관점에 대해 차이점을 중심으로 요약하시오.**

[35점, 답안지 8줄±2줄] (400자 내외: 300~500자)

**문제 2)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관점 중 하나를 택하여 다른 관점을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 간 역사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에 관해 논술하시오.**

[65점, 답안지 22줄±2줄] (1,100자 내외: 1,000~1,200자)

## - 출제 기본 방향 -

이번 논술고사 문제 출제의 기본 방향은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무엇보다도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충분히 풀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였다.

※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2010), VII장(전체주의의 대두와 민족 운동의 발전) 및 IX장(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의 내용에 기반하여 출제.

※ 고등학교 시민윤리 (교육과학기술부, 2010), IV장(국가 발전과 지구 공동체)의 내용에 기반하여 출제.

2. 고교 교육과정 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논술고사는 정해진 고교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해하였는가를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의 여러 현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과 그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까지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3. 출제하는 문제의 주제가 특정 전문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대부분의 학생이 관심을 가질만한 보편적인 사회적 이슈들을 선별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4.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편향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창의적/논리적 해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복수의 관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제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제시문 내의 정보와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리적인 답안을 도출해 내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에서 문제를 출제하였다.

## -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

### ■ 출제 의도:

현재 한국사회는 현저해지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조류 속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서로 다른 언어·문화·역사·관습을 존중하는 열려 있는 시각을 갖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는 서로 얽히며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정작 동아시아에서, “우리”와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는 열린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한일 간에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 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적대적 논란이 반복되어 온 현실은, 결국 한국과 일본이 함께 경험한 역사에 대한 양 쪽의 확연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한일 간 역사인식의 차이를 넘어,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는 비단 과거의 역사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문제인 동시에 미래의 문제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화두는 곧 대학에 들어와 한국 사회, 나아가 동아시아 사회, 더욱 나아가 세계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 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술고사에서는, 한일 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우리”의 시각을 중심으로 접근해 온 입장(대체로 “민족주의적”이라 정의될 수 있는)과 “우리”의 입장을 강조하기 보다는 타자와의 관계성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새롭게 접근하려는 입장(대체로 “탈민족주의” 또는 “탈식민주의적”이라 정의될 수 있는)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 한일 사이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넘어 보자는 동일한 목표를 놓고, (1) 먼저 한국은 일본 식민통치의 피해자라는 특수성을 우선시하면서 나쁜 가해자 일본과 선량한 피해자 한국의 차이점을 중시하는 관점과, (2) 이와는 반대로 차이점이 아니라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을 먼저 찾아야만 신뢰회복과 공존이 가능하다는 관점이, 서로 부딪히며 논쟁이 발생하는 지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각각의 관점이 담긴 두 제시문을 제시함으로써, 우선 학생들로 하여금 양쪽의 관점과 논리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두 관점 중에 하나를 자신의 관점으로 택하여 이를 일관된 논리로 전개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제시문의 정확한 이해, 주장 및 논리의 차이에 대한 명료한 분석, 관점 제시의 명료성, 논리 전개 일관성, 표현의 효과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 -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

### ■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인터넷 블로그에 2013년 4월 11일에 게시된 역사학자의 기고문 「우려되는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와 한일관계」의 일부를 본 논술고사 제시문의 성격과 형식에 맞도록 수정하고 편집한 글이다.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일본 집권층의 접근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식민통치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일본 내 주류 정치인들의 역사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자는 논지이다.

이 글은 그러한 비판을 도출하기 위해, 근대 이후의 한일관계에 대해, 한국을 선량한 피해자로 설정하고 그 반대편에서 가해자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을 강조하는 이항대립적인 인식론을 취하고 있다. 또한 그로 인해, 한일 간 뿌리 깊은 역사인식의 차이를 넘어 평화와 공존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라는 한국의 특수한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가해자 일본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양측의 역사적 입장에 큰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리가 다소간 감정적인 수사적 표현으로 잘 노정되어 있는 전형적인 민족주의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탈민족주의 또는 탈식민주의적 관점을 표방하는 한일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의 주요 논지를 본 논술고사 제시문의 성격과 형식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도록 개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역사문제 인식의 차이는 사실 한일 양쪽이 모두 자국 중심주의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어 동일한 논리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 제시문은 지적한다. 결국 한일 양국이 모두 이런 자국 중심적인 관점을 고수하는 한 화해가 되더라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역사문제에 대한 양쪽의 접점을 찾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양쪽 모두의 자국 중심주의적인 태도로 인해, 한국 쪽이 “너희가 먼저 우리를 가해했다”라고 피해자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양쪽의 차이를 강조하게 될수록 일본도 점점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서로 맞물린 악순환의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특수성에 입각한 “차이”가 아니라 보편성에 입각해서 양쪽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먼저 찾아야 해결책이 보인다는 지적이다. 결국 자국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은 사실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양쪽 모두가 늘 서로 조심해야 한다는 성찰적 관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형식적 사과와 불신에 기초한 불안한 관계 대신에, 양쪽이 서로를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는 신뢰에 바탕을 둔 항구적 평화와 공존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 ■ 문제 해설:

문제 (1)은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각각의 입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두 입장의 구체적 차이와 그 기저에 놓여 있는 쟁점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명료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문제 (2)는, 골 깊은 한일 간 역사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학생 자신이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입장에서 그 반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관된 논리를 전개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까지 도출해 내는 과정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상반된 두 입장의 주장과 설득력있는 근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에 입각한 주장에 보다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정연하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 - 모 범 답 안 -

### 문제 1)

제시문 (가)는 식민통치·위안부·독도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집권층의 역사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비판을 강화하자라는 주장이다. 한일 간 역사인식의 차이를 넘어 공존을 이루려면, 피해자라는 한국의 특수한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가해자 일본의 진심어린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양측의 역사적 입장에 큰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민족주의의 관점이다.)

제시문 (나)는 한일이 모두 자국중심적 관점을 취해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 이 구도가 유지되는 한 화해가 불가능하니, 현 논쟁의 구도 자체를 벗어나자는 논지이다. 한국이 피해자의 특수성을 내세워 양쪽의 차이를 강조하게 될수록 일본도 더욱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따라서 양쪽이 자국중심적 관점에서 한 걸음 물러나 성찰적으로 접근해야만, 서로를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는 신뢰형성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점에서 탈민족주의적 관점이다.)

### 문제 2)

#### 제시문 (가)를 선택한 경우:

흔히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일컬어진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심리적으로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두 국가 간의 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된 배경에는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일본의 한반도 강탈의 역사가 그 기저에 존재한다. 과거 왜구들은 우리나라 연안을 끊임없이 노략질하여 왔다. 급기야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 왕조를 침략하고 약탈하였다. 근대에 들어서는 식민지 지배를 통해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 준 바 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장 멀고 밉게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고 하여 더 이상 서로 좋은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유대인을 학살하고 이웃나라에 심대한 피해를 끼쳤지만, 오늘날의 독일은 유럽 일대에서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무엇이 독일과 일본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전후 독일은 과거사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표하였다.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피해자를 찾아 성심껏 용서를 구한다. 이로써 오히려 주변 이웃들의 존경을 얻는 것이다. 뻔뻔하게 모두가 다 아는 역사를 부정하고 그 피해자들을 모른 척하며, 도리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를 미화하고자 하는 현 일본 정부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 - 모 범 답 안 -

(앞 페이지 이어서)

제시문 (나)는 두 국가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자국중심적인 역사관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선이고 너희는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만 한일 간의 진정한 동반자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제 나를 해코지했던 강도가 오늘 나 그런 적 없다며 뻔뻔하게 나오는 데도 그 강도와 친구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그러한 강도라면 다시 나를 강탈하지 않으리라 믿을 수도 없는 일이다. 오히려 강도의 솔직한 자세와 진심어린 사과가 어제의 강도조차도 미래의 친구로 만드는 힘이 아닐까? 이러한 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말아야 미래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나)의 입장은 지극히 이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바라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아픈 과거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고, 국제사회에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야 한다. 이것이 일본 내의 양심적인 목소리들이 힘을 얻고, 이를 통해 일본의 주류사회가 변화하며,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여는 유일한 길이다.

### 제시문 (나)를 선택한 경우:

“어떻게 뿌리 깊은 한일 간 역사인식의 차이를 넘어, 양쪽 모두가 동아시아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한국사회에서 오래된 화두이지만, 여전히 그 답을 찾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식민통치 문제나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여 왔지만, 매번 그 효과는 신통치 않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는, 이제까지와 같이 한일 양쪽이 모두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구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가 자국중심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면, 한국이 선한 피해자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나쁜 가해자”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소리 높여 요구할수록, 일본도 그에 따라 자기중심적 방어기제를 작동시키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자기 민족/국가의 전통과 정체성을 절대시하며 이웃 민족/국가를 무시하는 역사관은, 일본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본의 전통과 정체성을 무시하는 시각에 대해, 한국사회가 특히나 관용적이라는 것은 우리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런 역사관에 입각한 연구와 교육이 계속되는 한, 과연 “우리”와 “그들” 사이의 신뢰와 공존이 가능할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는, 우리가 “피해자”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악한 가해자 일본”과 “선한 피해자 한국”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다. 그 실마리는 특수성에 입각한 “차이”가 아니라 보편성에 입각하여 양쪽 모두가 공유할 “공통분모”를 찾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렇게 국적을 초월한 보편적 인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는, 결국 양쪽 모두가 자신의 민족 또는 국가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사관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은 사실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양측 모두가 늘 스스로에 대한 성찰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만, 잠재된 서로의 민족주의적 시각을 자극하지 않고 점차 신뢰를 공유할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제서야 “분노의 날”을 세워 받아낸 형식적 사과와 불신에 기반한 불안한 관계가 아니라, 항구적 화해와 공존을 바탕으로 한 양국의 동반자적 관계가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다.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라는 미래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